

성공하는 미래진안 실현 다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탄력

군,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 위한 5대 분야 59개 공약사업 확정

진안군은 지난 7일 민선8기 군정비전인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59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군정비전과 6대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지난 4일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조정을 거쳐 7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진안군은 지난 7일 민선8기 군정비전인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59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추진전략별 공약은 △골고루 잘사는 경제육성 15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문화관광 11건,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활 18건,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9건,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6건 등 예산 7,805억원 규모로 틀을 잡았다.

이번 공약의 주요 목표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진안을 중심지 확장 및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문화·예술·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꿈을 펼치며 군민으로 살아가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역점을

뒀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요구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명확한 분석한 분석을 거쳐 공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추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민선 8기에 이르고자 하는 사업들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누리며 모두가 성공하는 미래진안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제34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가져

영동군·김천시와 삼도화합 기원제 드리며 화합·주민 안녕 기원

무주군과 영동군, 김천시 3개 시·군의 상호 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한 제34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10일 삼도봉 정상(해발 1,176m)에서 진행됐다.

이날 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에서 진행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충섭 김천시장, 정영철 영동군수, 사회단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삼도 화합 기원제는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를 차례로 드리며, 삼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이다.

황인홍 군수는 "33년간 삼도봉에서 맺어온 3도 3시·군의 화합과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한자리에 모인 만큼 화합과 상생

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 1989년 10월 무주군에서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가 삼도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순번제로 주관·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지역감정을 털어내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만남의 날로 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다문화가족과 소통의 시간 가져

장수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2년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베트남·중국·일본 나라별 4개국의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22여 명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장수군수 주제로 개최된 이번 다문화가족 간담회는 지역사회 다

문화가족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군정에 반영해, 다문화가족이 장수군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장수군의 다

문화가족을 위해 계획·추진 중인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함께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에 선정돼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사업'은 집단화된 온실단지에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시설원에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28억원을 현재 추진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투입함으로써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하겠다는 계

획이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싶지만 온실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청년 창업농들에게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임대해 첨단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자와 장수군 청년농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성도 높은 장수군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수군이 전라북도 동부권 스마트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구천동 관광활성화 위한 어사길 걷기 행사

무주군은 무주구천동 관광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어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무주구천동 어사길 탐방을 통해 어사 박문수가 다녔던 탐방로 및 아름다운 무주구천동 계곡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입 효과 및 재방문 기회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날 구천동어사길 걷기 행사는 오전 10시 구천동 다목적 광장을 출발하는 일정으로 인월담과 소원의 문, 청류동, 비파담, 구월담, 금포탄, 호탄암, 안심대, 다목적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왕복 12km)다.

이날 행사는 (사)무주군관광협회와 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구천동관광특구연합회가 주관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암행어사 포토존 운영과 함께 구천동 어사길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천연



비누세트증정과 추첨을 통한 경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다목적광장에서 부대행사로 퓨전국악을 비롯한 가을음악회, 덕유산국립공원이 주최하는 만들기체험 시간도 갖는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무주구천동 33경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시면서 최대 힐링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어사 박문수가 다녔던 길에서 올 가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동체 참여 지역 소멸위기 대응 '진안박람회' 개최

진안군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지방) 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오는 13일~14일 진안고원시장 주차 광장(진안읍 시장길 8-17)에서 '2022 진안박람회'를 개최한다.

진안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및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과 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는 진안박람회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30여개 공동체가 참여한다.

개막식인 13일에는 지역(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별명의 진안'이란 주제로 농촌공간 최민규 대표 등을 비롯해 3명의 발제자를 초청해 포럼도 진행한다.

또한 단체별로 홍보, 상담, 전시, 체험 및 플리마켓 등을 운영해 즐거기도 함께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전춘성 진안군수, 건설 현장 집중안전점검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7일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타 지역 아파트 붕괴 등 생활주변 대형공사장 사고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돼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점검자로는 안전재난과, 민원봉사과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나서 테라스하우스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정밀진단 등 후속 조치를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개선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종훈 장수 부군수 장수시장 현장행정 실시

장수군이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행정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종훈 부군수는 장수시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이종훈 부군수는 현장점검에 앞서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중간보고회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안전대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의 일환으로, 장수군은 시설물 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연중 안전점검 실시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